

# 내신도 본고사도 입시교육은 싫다



## 내신등급제와 본고사 부활 모두에 반대한다

교육부가 새로 도입한 입시제도 때문에 학생들은 “3년 내내 대학입시를 치르”는 기분으로 학교를 다니게 됐다.

상대평가제 때문에 같은 반 학생들 사이에도 경쟁이 더 심해졌다. 필기 공책 빌려주는 것도 꺼리는 분위기다.

학생들이 이러한 대입 제도에 반대하고 행동에 돌입하려 하자 교육부는 ‘홍보 부족’ 때문인양 말하고 있다. 각각의 학교 시험이 대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으니 “한두 점의 점수에 급급하지 말”(교육부총리 김진표)라고도 한다.

이런 주장은 학생들을 완전히 바보로 여기는 것이다. 1~2점 차이로 내신 등급이 바뀔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편한 맘으로 시험에 임할 수 있겠는가?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9등급제를 도입해 자신들의 개성

과 창의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공교육을 정상화’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거짓말이다. 명문대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버젓이 살아있고, 1등급을 받기 위해 시험에 목매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개성과 창의력을 계발할 수 있는 공교육은 꿈일 뿐이다.

내신 강화 때문에 내신 대비용 과목별 족집게 과외와 학원 특강 수강이 붓물터지듯한다. 예체능 특별 과외, 수행평가 특별과외까지 성행하기 시작했다. 수능 대비 사교육이 내신 사교육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오죽하면 “‘부풀리기 논란’이 있긴 해도 절대평가제가 훨씬 낫다”는 말이 나오겠는가.

따라서 학생들의 역압을 강

화하는 내신등급제에 반대해야 한다.

### 입시경쟁

학생들의 불만이 붓물터지듯하자 한나라당이나 <조선일보> 등은 새 대입제도를 비난하면서 학생들을 걱정하는 척한다.

한나라당 대표 박근혜는 “새 대입제도로 교실이 공부하는 장소가 아니라 친구들과 필요 이상으로 경쟁을 해야 하는 사막으로 변하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새 대입제도의 전면 폐지를 주장한다.

<조선일보>도 “중간고사 한번 잘못 봤다고 자살을 하고, 옆자리 친구를 밟고 일어서야 내가 이길 수 있는 내신 만능제도가 아이들을 얼마나 좌절시키고 멍들게 하는지 교육당국만 모르고 있”(5월 7일치 사설)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들은 작년에 ‘고교등급제’가 한창 문제가 됐을 때 내신 절대평가제가 학력 저하를 낳는다며 게거품을 물었던 자들이다.

이들은 귀족학교 양산으로 이어질 외국교육기관특별법 도입을 환영하고 고교평준화에 혀를 끝끝 찜뎠던 바로 그 자들이다. 이들이야말로 내신 상대평가제 도입에 한몫했던 자들이다.

따라서 한나라당과 <조선일보>가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것은 완전히 위선이다.

이들은 고교평준화 해체와 본고사 도입 등을 염두에 둔 “대학 자율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고교평준화가 해체되면 입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명문고를 가기 위한 경쟁이 심해져서 입시 경쟁은 중학교까지로 확대될

것이다. 또한 대학별 본고사가 부활하면 고등학생들의 경쟁 압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정부는 말로는 본고사 도입을 막겠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논술형 본고사를 도입하려고 하는 서울대의 2008학년도 입시안을 긍정적으로 언급했다.

한국의 학생들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입시 경쟁에 시달리는 이유는 서울대와 명문대를 꼭 대기로 하는 대학서열화 때문이다.

이 문제를 완화하거나 없애지 않고 입시 제도만을 이리저리 바꾸는 것으로는 학생들 사이의 치열한 경쟁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내신등급제도, 본고사도 입시경쟁 교육일 뿐이다. 대학서열을 폐지하고 수능은 자격고사화해야 한다.



# 학생들의 집회 참가는 정당합니다

교육당국은 고등학생들의 촛불 집회 참가를 비난한다.

당국은 학부모들에게 학생들의 집회 참가를 막아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또, 집회장에 장학관·장학사, 각 학교 교장·교감·생활지도부 교사 등을 보내 학생들을 단속하려 한다. 지난 6일 서울시교육청은 광화문 촛불 집회에 참석하는 학생을 징계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입시기계가 아니다. 인간이다. 성적 때문에 목숨을 끊은 친구들의 죽음에 슬퍼하고 분노하는 게 왜 잘못인가?

교육당국은 집회 '배후'에 '불순한' 세력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촛불 시위의 진정한 배후는 학생들을 입시 경쟁으로 내모는 교육당국 자신이다.

“학생들이 뭘 알아 하는 태도는 오만하기 짝이 없다. 우리의 교육 현실이 “전인교육”, “개성과 창의성”과 전혀 관계없다는 것을 모르는 청소년들이 어디 있을까?

정부와 보수 언론은 학생들이 “군중 심리”에 빠져 엉뚱한 짓을 저지르려봐 걱정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학생들은 스스로 생각할 수 없는 존재가 결코 아니다. 역사적으로, 학생들은 3·1 운동부터 4·19 혁명, 5·18 광주항쟁 등 제국주의와 군부독재에 반대하는 투쟁에서 중요한 구실을 했다.

최근에 일어난 중요한 시위에서도 학생들의 참가가 두드러졌다. 많은 학생들이 2002년 여중생들을 깔아죽인 주한미군에 분노해 촛불집회에 참가했다. 또, 죄없는 이라크인들을 대량학살한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집회에도 많이 참가했다.

세계적으로도, 반전 시위와 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에서 학생들의 모습은 두드러졌다. 올해 프랑스에서는 고등학생 10만여 명이 정부의 대입 제도 개정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정부 계획이 교사 수를 줄이고, 입시 경쟁을 강화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입시 경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통에 시달리는 당사자들이 교육 정책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학생들의 집회 참가는 완전히 정당하다. 교육당국은 징계 협박을 멈추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 입시제도인가, 살인제도인가

“엄마 맘 편히 사세요.”, “시험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중간고사를 망쳤습니다. 부모님 정말 죄송해요.”

잔인한 “중간고사의 계절”인 4월에 열 명이 이런 말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울들어 벌써 20명의 청소년이 자살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15세부터 19세까지의 사망 원인 2위가 바로 성적 비판 자살이다.

청소년의 47.8퍼센트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시험 성적이 목숨보다 중요하다고 속삭이고 가르치는 끔찍한 경쟁체제와 입시제도가야말로 청소년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제도다.

교육부 게시판에는 입시 교육, 경쟁 교육에 대한 한과 절규가 넘치고 있다.

“자살할 것도 없이, 지금 저희 생

활이 죽음입니다.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좋은 문제집은 훔쳐가고 필기된 노트 찢어가고”, “시험 기간 하루하루가 피튀기는 전쟁입니다. 친구이기 이전에 우린 모두 적이 돼 버렸습니다.”

“같은 반의 짝궁 조차도 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입시교육의 공포 속에서 자신들을 “실험실용 쥐”나 “저주받은 89년생”이라고 부르는 청소년들은 경쟁을 위한 입시제도의 제물이 되고 있다. 선의의 경쟁이라는 표어 아래 교실은 전쟁터가 되고 있다.

그런데도 교육부 장관 김진표는 경쟁을 부추기는 각종 입시제도를 쏟아낸다. 그는 자립형 사립학교도 입에 앞장섰고, 교육개방 계획서를 제출한장본인이다. 철저히 외국 교육자본과 부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했던 바로 그 입으로, 그 손으로 교실을 “잔인한 전쟁터”로 만든 입시제도를 “개성과 창의성 계발”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점수에 저당잡힌 푸른 꿈”을 되찾으려면 모든 입시 경쟁이 사라져야 한다. 청소년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살인제도가 없어져야 한다.

“고2 교육부 실험용 쥐, 고1 교육부 꼭두각시!”

“친구에게 노트를 빌려주지 않으려고, 혹은 전교1등 하는 친구의 책을 사들여 열쇠에 잠겨 태우는 끔찍한 혼란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교실에 앉아 있으면 사방이 적들로 둘러싸여서 공부하는 그런 느낌.”

“고등학교 학생들끼리 배틀로얄(무인도에 납치도니 중학생들이 벌이는 생존게임 그린 일본영화) 하라는 소리인가요? 몇 백 명을 죽여 버리고 겨우 1등급 받은 학생들이 과연 행복할까요?”

“우리는 교육부의 장난감도, 등급에 따라 나눠지는 돼지고기도 아닙니다. 단지 17살일 뿐입니다.”

“모두 생각이 다른 아이들에게 같은 옷, 같은 책, 같은 생각. 모두 같은 것을 넣어 주려고?”

청소년도 시민이고 저항할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학생들의 목소리